

- 주요 뉴스: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12월 FOMC 0.50%p 금리인상을 지지
 - COP27,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앙 관련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 미국 뉴욕 연은, 은행 유동성이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을 소지
 - Refinitive, 미국 4/4분기 기업실적은 금리상승과 성장둔화 등으로 부진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감소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7%],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일부 소매기업 실적 부진 연준 인사의 때파적 발언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예상치 상회하는 기업실적 등으로 0.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1.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역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15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1.6% 상승, 한국 CDS 하락

		11/18일	11/11일	전주말대비			11/18일	11/11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965.3	3,992.9	-0.69%	국채 금리 10y	미국	3.83%	3.81%	2bp
	유럽	433.33	432.26	0.25%		독일	2.01%	2.16%	-15bp
	중국	3,097.2	3,087.3	0.32%		영국	3.24%	3.36%	-12bp
	일본	27,900	28,264	-1.29%	CDS 5y	한국	52bp	56bp	-4bp
	한국	2,444.5	2,483.2	-1.56%		중국	79bp	79bp	0bp
환율	달러지수	106.93	106.29	0.60%	위험 지표	EMBI+	406	425	-19bp
	유로화	1.0325	1.0347	-0.21%		VIX	23.12	22.52	2.66%
	엔화	140.37	138.81	-1.11%		WTI유	80.08	88.96	-9.98%
	위안화	7.1198	7.0973	-0.32%	원자재	구리	363.2	391.4	-7.19%
	원화	1,340.3	1,318.4	-1.63%		금	1,750.7	1,771.2	-1.1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12월 FOMC 0.50%p 금리인상을 지지

- 보스틱 총재는 12월부터 0.75%p 금리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발언. 또한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0.75%p~1.00%p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능하다고 부연. 현재 시장에서도 12월 FOMC에서 0.50%p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준이 금리인상을 멈추어야 할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언급. 이에 더해 금리인상의 영향이 완전히 나타나려면 12~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아울러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진행될수록 당국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 달성을 위한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금리인상을 멈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
- 한편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슈카리 총재는 암호화폐의 개념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주장. 암호화폐는 유용한 지급결제 방식도, 인플레이션 헤지의 수단도 아니며 단지 투기의 도구라고 경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COP27, 개발도상국의 기후 재앙 관련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인 이집트의 외무장관은 당사국 합의로 개발도상국 기후재앙 손실 피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 다만 보상 시기, 보상금 부담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격론이 예상
- 아울러 '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와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지속하기로 결정. 다만 석탄 뿐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사용 감축 합의에는 실패

■ IMF 총재, 글로벌 무역장벽 증가로 1.4조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

- 기오르기예바 총재는 러-우 전쟁 및 중국과 이외 국가들과의 무역장벽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는 1.4조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만 한다고 지적.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비중이 컸던 아시아는 피해가 더욱 크다고 평가

■ 미국 뉴욕 연은, 은행 유동성은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을 소지

-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은행시스템의 현금 관리 방식으로는 유동성이 외부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다고 지적. 이러한 상황을 고려 시, 연준의 채권 축소 과정에서 은행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 Refinitive, 미국 4/4분기 기업실적은 금리상승과 성장둔화 등으로 부진할 전망

- IBES 자료에 따르면, 금년 4/4분기 S&P500기업의 이익은 전년동기비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 이는 10월 초 예상에 비해 크게 하향 조정된 결과(5.8%→0.4%). 내년 S&P500 기업의 이익도 연준의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Boston Partners)

■ 독일 및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ECB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는 유로존의 경기침체 진입 위험이 높아져도 ECB는 금리인상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네덜란드 중앙은행 뉓 총재 역시 수요 억제를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지 못하도록 ECB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

■ EU, 12/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적용할 계획

- 당초 예정대로 12/5일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가 시작될 전망. 아울러 EU 당국은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금지에 나설 방침. 다만 아직 시행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며, 얼마든지 대화도 가능하다고 부연

■ 골드만삭스, 달러화지수 정점 통과는 2개 분기 후에 발생할 가능성

- 역사적으로 달러화지수는 미국의 통화정책 및 글로벌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 한편 최근 1유로당 1.03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3개월 후에는 0.94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21 현지시각 기준)

- 영란은행 컨리프 부총재 강연, 중국 인민은행 금리결정
- 미국 10월 시카고 연은 전미 경제활동지수, 독일 10월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소매업계, 연말 소비 위축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을 필요 - WSI

(Nightmare Before Christmas for Department Stores)

- 백화점들은 연말 연휴시즌 할인판매를 일찍 시작했으나, Macy's와 Kohl's 등은 10월 매출이 예상 외로 둔화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11월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
- 낙관론자들은 작년에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재고 부족을 대비해서 소비자들이 평소보다 일찍 연말 쇼핑에 나선 반면, 올해는 재고 과잉 상황을 고려해 연휴시즌 후반 가격 인하 기대를 바탕으로 구매를 이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조기의 연말 연휴 쇼핑은 공급망 차질이 없던 팬데믹 이전에도 유행하던 추세. 이에 백화점들은 지속적인 소비 위축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

■ 세계경제, 중국의 코로나 19 정책 전환 등은 긍정적 변화. 과도한 기대는 경계 - 블룸버그

(The World Economy Catches Some Lucky Breaks)

- 최근 세계경제는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지지 및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 등 몇몇 긍정적 소식들로 안도
- 중국의 정책전환은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 연준의 통화정책은 긴축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초고강도 긴축 국면은 지난 것으로 판단. 단,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가 요구
- 일부에서는 경기둔화 및 물가하락으로 '23년 여러 국가에서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 다만 정책 입안자들은 작년의 물가전망 오류를 반복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중국 경제가 갑자기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희박

■ FTX의 회계 문제,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현상일 우려 - 블룸버그

(Where Did FTX Put the Money?)

- FTX의 파산 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존 레이 신임 CEO는 자신의 경력 동안 FTX와 같은 기업 통제 실패와 신뢰할만한 재무정보의 부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언급. 고객의 자금을 어디에 두었는지, 이를 어떻게 베풀었는지도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 무엇보다 FTX는 고객의 자금을 잘못 두지 말라는 회계의 기본 원칙을 위반
-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1개 기업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징후일 소지. 우스꽝스러운 회계기록, 가치 없는 디지털 토큰, 부풀려진 가치가 넘쳐나는 업계에서 FTX는 일반적인 기업 중 하나일 가능성

■ 연말 유로존 경제, 침체 수준은 예상보다 경미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Eurozone edges away from risk of deep winter recession)

-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금년 4/4분기(-0.5%) 및 내년 1/4분기(-0.1%) 역성장에 따른 경기침체를 예상. 그러나 전문가들의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3.2%)은 7월(2.7%) 대비 상승하며 당초 우려보다 경기침체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이는 유럽 각국의 재정지원 확대, 천연가스 가격 하락 및 충분한 비축량 등에 기인
- 다만 3월 러-우 전쟁 직후 '23년 유로존 성장률은 2.3%로 예측되었으나 최근에는 -0.1%로 전망되며 급격한 둔화 가능성을 제시. 이와 관련하여 고물가에 따른 소비위축과 충분한 천연가스 확보의 어려움 등이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

■ 신흥국 고수익채권의 강세, 저평가 해소될 수 있으나 주의도 요구 - 블룸버그

(High-Yield Party Returns to Emerging Markets Too Cheap to Ignore)

- 최근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로 신흥국 고수익채권에 자금이 유입되며 미국 국채와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 이는 신흥국 고수익채권의 저평가 해소로 해석 가능.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 등으로 단기적 측면에서 해당 국가들의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하락(State Street Global Markets의 Ben Luk)
- 다만 파키스탄처럼 대외부채 의존도가 높고, 시장 접근성이 제한된 국가는 신중한 접근이 적절(Tellimer의 Stuart Culverhouse). 또한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의 경우 절반 이상 국가들이 B등급 이하 신용등급을 나타내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

■ 각국 중앙은행, 물가안정 집중을 통한 정책실회 회복이 중요 - 블룸버그

(Humbled Central Bankers Scale Back Their Ambitions)

■ 미국, 달러화 패권 유지를 위해 디지털 화폐 발행 고려할 필요 - WSJ

(Why the U.S. Needs a Better Digital Dollar)

■ 터키 통화당국, 기록적 고물가에도 금리인하 지속할 전망 - Financial Times

(Will Turkey cut interest rates again despite roaring inf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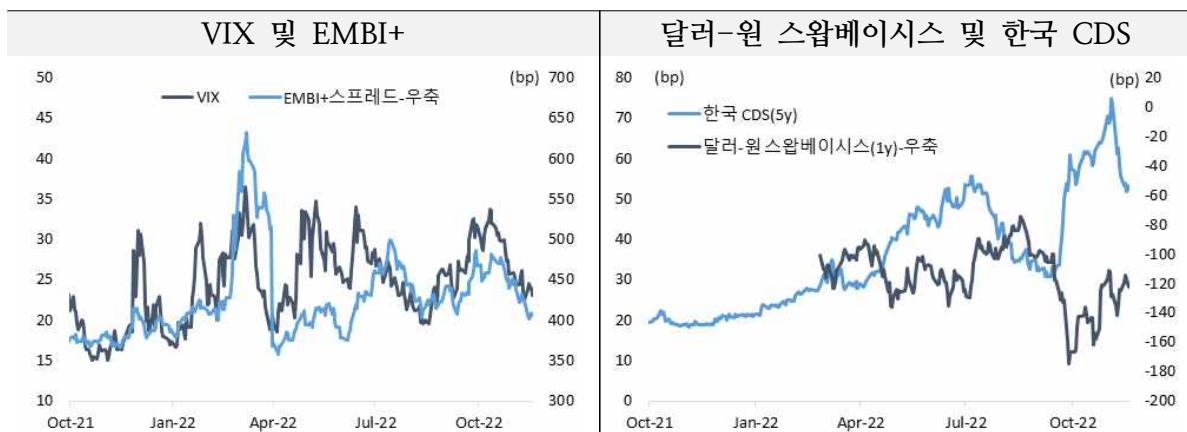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